

LÉVY GORVY 厲為閣

레비고비, 중국지역 최초로 프랭크 스텔라 개인전 개최

미국의 거장
프랭크 스텔라: 폴란드 마을
2019년 5월 24일 - 7월 27일

레비고비 홍콩
2 아이스하우스 스트리트 1층
홍콩 센트럴

오프닝 리셉션: 5월 23일 목요일, 6-8PM



프랭크 스텔라 <올키에니키 II> 1972. 골판지, 펠트, 페인트, 목조 구조, 241.3 x 213.4 cm. © 2019 프랭크 스텔라 / Artists Rights Society (ARS), 뉴욕.

홍콩—레비고비 홍콩은 중국지역 최초로 미국 작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의 개인전 <미국의 거장 프랭크 스텔라: 폴란드 마을 American Master. Frank Stella: Polish Villages>를 개최한다. 세계 2차대전 중 나치에 의해 파괴된 폴란드 동부 지역 17-19세기 목조 시너고그(유대교 회당)에서 영감을 받은 스텔라의 <폴란드 마을> 시리즈는 작가가 회화 작품에서 처음으로 부조(浮彫) 형식을 차용한 작업으로 그의 작품세계에 있어 핵심적 전환점이자 주요 초기 연작으로 손꼽힌다. 5월 24일 개막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연작 중 일부 작품이 소개되며 홍콩 센트럴의 역사적인 세인트 조지 빌딩(St. George's Building) 1층에 개관한 레비고비 홍콩의 전시공간 전체를 아우른다.

프랭크 스텔라는 1950년대 후반 미니멀리즘 연작 '검은 회화 Black Paintings'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추상표현주의 유산에 대한 반작용이자 전후 미술의 새로운 장을 연 그의 작업은 회화의 일루전(환영)을 거부하고 대칭적인 패턴과 제한적인 색채, 완벽하게 매끄러운 채색 작업을 통해 화면의 평면성과 캔버스 형태 자체에 초점을 둔 오브제 자체를 선사하고자 했다. 작가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작을 진행하며 다양한 색상과 과정의 변주를 통해 회화 표면과 입체적 형태 사이의 긴장관계를 실험했다.

큐비즘과 구성주의 논리에 기반한 스텔라의 <폴란드 마을> 아상블라주 작품들은 1970년 전후 제작되기 시작했으며 연작에서 작가는 이전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평면적 표면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연작이 진행되면서 작가의 회화적 영역은 점차 사선형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각적이고 건축적인 부조 형태로 진화했다. <폴란드 마을>은 마리아와 카지미에시 피초트카(Maria and Kazimierz Piechotka)의 저서 「목조 시너고그 Wooden Synagogues」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으로, 책은 건축 전문가인 두 저자가 1920-30년대 건축물 조사 당시 기록된 목조 시너고그 71곳의 사진과 드로잉을 수집한 결과물이다. 시너고그의 정교한 목공예와 각진 구조를 반영하는 스텔라의 작품들은 피초트카의 저서에 소개된 각 건축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삼고 있으며 구조마다 다양한 재료와 형태의 여러 버전으로 제작되었다. 스텔라는 2016년 「아트포럼 Artforum」과의 인터뷰에서 "모더니즘의 구성주의는 모스크바에서 바르샤바를 거쳐

베를린으로 전파된 반면 이 신성한 회당들을 파괴한 나치의 동선은 정확히 반대였다."라고 설명하며 연작의 개념적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프랭크 스텔라 <로스돌 I> 1973. 혼합매체 저부조 콜라주, (펠트, 캔버스에 채색, 카치나(Kachina) 보드에 페인트 도색) 289.6 x 238.8 x 12.7 cm. © 2019 프랭크 스텔라 / Artists Rights Society (ARS), 뉴욕.

이번 레비고비 홍콩 전시에는 연작 중 <올키에니키 II Olkienniki II>(1972)와 <로즈돌 I Rozdol I>(1973)이 포함되며, 두 작품은 스텔라가 부조 형식을 새롭게 시도하며 활용했던 골판지, 펠트, 목조, 컬러 캔버스 등의 다양한 매체로 이루어진 대규모 작업들이다. <폴란드 마을>은 1970년 3월 뉴욕현대미술관(MoMA)에서 개최된 작가의 첫 회고전 직후 제작된 연작으로, 당시 34세였던 그는 오늘날까지도 미술관 역사상 최연소 대규모 회고전 작가로 기록되고 있다. 반면 베트남 전쟁의 혼란 중 자신의 전시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느낀 스텔라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진심 어린 대응으로 <폴란드 마을>을 선보였다. 더불어 연작은 1970-80년대 작가의 작업을 구분 짓는 형태적 '맥시멀리즘'과 실험정신의 출발점이 되었다.

작가 소개

프랭크 스텔라는 193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교외에 위치한 몰든(Malden)에서 태어나 앤도버 필립스 아카데미 (Phillips Academy) 재학시절 회화 작업을 시작했다. 애디슨 미국 미술관(Addison Gallery of American Art) 관장이자 화가였던 그의 은사 바틀렛 H. 헤이즈(Bartlett H. Hayes, Jr.)는 바우하우스의 색채이론가 조셉 알버스(Josef Albers)와 추상표현주의 선구자 한스 호프만(Hans Hofmann)의 이론을 제자들에게 설교했고 이는 스텔라에게 체계적인 작업으로서 회화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프린스턴대학교 진학 이후에는 윌리엄 사이츠(William Seitz)와 스티븐 그린(Stephen Green)에게 회화를 사사 받았으며 역사를 전공했다. 1958년 졸업 후 뉴욕으로 이주한 스텔라는 그곳에서 추상표현주의의 유산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작가는 잭슨 폴록(Jackson Pollock)과 윌렘 데 쿠닝(Willem de Kooning)을 처음 접했을 당시에 대해 "그들의 작품에서는 불확신 혹은 망설임 같은 어떤 모호함이 느껴졌다. 그 모호함이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지나친 섬세함으로 느껴졌다."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반면 스텔라는 재스퍼 존스(Jasper Johns)의 국기와 표적 작품이 보여준 절제와 순차적 논리에 깊이 공감했다.

1959년 뉴욕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한 역사적인 전시 <16 아메리칸 Sixteen Americans >에 '검은 회화' 4점이 출품되면서 당시 23세였던 스텔라는 전시의 최연소 참여작가로 선정되었다. 미술사가 케이트 네신(Kate Nesin)이 "도해적이면서도 촉감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이 회화 작업은 이후 20여 점의 대규모 연작으로 확장되었다. 이듬해 작가의 첫 개인전이 뉴욕 레오 카스텔리(Leo Castelli)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당시 작가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연작을 진행하며 다양한 색 평면을 기하학적 패턴과 비환영적(non-illusionistic) 표면으로 변주하기 시작했고 줄무늬와 다양한 형태의 캔버스로 이루어진 그의 세 연작 <블랙>, <알루미늄>과 <구리(copper)> 시리즈는 추상표현주의에서 미니멀리즘으로의 전환기를 이끌어낸 상징적인 작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칼 안드레(Carl Andre)와 도널드 저드(Donald Judd)의 절친이기도 했던 스텔라는 미니멀리즘 조각의 전개 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당신이 보는 것은 보이는 것 그대로다"라는 그의 1964년 발언은 미니멀리즘을 대변하는 슬로건이 되었다.

이후 스텔라의 작품은 <기하학적 추상 Geometric Abstraction>(1962년 뉴욕 휘트니 미술관), <다른 형태의 캔버스 The Shaped Canvas>(1964-65)와 <체계적 회화 Systemic Painting>(1966년, 두 전시 모두 뉴욕 솔로몬 R.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개최), <도큐멘타 4 Documenta 4>(1968) 등 전후 미술의 역사를 새롭게 쓴 다수의 단체전에서 소개되었다. 1970년에는 뉴욕현대미술관에서 그의 11년 작가 인생을 조명하는 대규모 개인전이 개최되었다. 이 전시를 통해 그는 미술관 역사상 최연소 개인전 작가로

기록되었으며 그 이후 17년 동안의 작업을 소개하는 두 번째 회고전이 1987년에 개최되었다. 두 전시 사이의 기간 동안 스텔라의 회화 작품은 콜라주에서 부조로, 더 나아가 복합적인 공간적 구조물로 진화해 나갔다. 초기 작업의 절제미는 곧 대담하고 화려한 제스처로 대체되었다. 작가는 1950년대 후반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작업의 변화를 미니멀리즘에서 '맥시멀리즘'으로의 전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스텔라는 회화와 추상에 대한 다수의 에세이를 집필한 바 있다. 1983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찰스 노턴 교수(Charles Eliot Norton Professor of Poetry)로 임용되어 강연 시리즈를 진행했으며 이는 그의 1986년 저서 「워킹 스페이스 Working Space」로 출간되었다. 2015년에는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작가의 회화, 부조, 조각, 회화-조각, 드로잉 등을 포함해 그의 60년 작가 인생을 기념하는 대규모 회고전이 개최되었다.

레비고비 (Lévy Gorvy) 소개

도미니크 레비(Dominique Lévy)와 브렛 고비(Brett Gorvy)에 의해 설립된 레비고비는 근현대와 동시대 미술을 중심으로 최고의 전문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생존 작가는 물론 작가재단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한 다채로운 전시 프로그램과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폭넓은 교류를 시도하는 레비고비는 미술사 관련 연구와 학술 활동, 도록 및 전시 관련 서적 출간 또한 활발히 지원하고 있다. 현재 뉴욕 매디슨가 909번지, 런던 메이페어와 홍콩 센트럴에 위치한 세 곳의 전시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인 레비고비 럼블러(Lévy Gorvy with Rumbler)를 통해 전 세계 개인 컬렉터 및 미술기관에 맞춘 프라이빗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레비고비 뉴욕 909 Madison Avenue, New York, NY 10021, +1 212 772 2004

레비고비 런던 22 Old Bond Street, London W1S 4PY, +44 (0) 203 696 5910

레비고비 홍콩 Ground Floor, 2 Ice House Street, Central, Hong Kong, +852 2613 9568

www.levygorvy.com | [@levygorvy](https://twitter.com/levygorvy)

홍보 담당자

Marta de Movellan, Lévy Gorvy, New York, marta@levygorvy.com

Anita Handayani, Lévy Gorvy, Hong Kong, anita@levygorvy.com